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목회를 하면서 늘 떠나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상적 바람과 실제적 요구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실제적 요구는 현실에 근거한 우리의 욕망이고 이상적 바람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입니다.

결국 이 둘의 차이는 하나님을 열망하는가? 아니면 욕망을 다라 사는가?에 달린 문제일 것 같습니다. R. T. 켄달이 쓴 [하나님을 열망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 둘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임재를 원하는 것과 하나님에게서 무언가 더 많이 받기만을 원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다:

- * 하나님의 더 큰 임재를 원하는 것은 그분 자체를 원하다는 뜻이다.
- 하나님에게서 더 많이 받기만을 원하는 것은 그분이 내게 줄 수 있는 특정한 무언가를 원한다는 뜻이다.

- * 하나님의 더 큰 임재를 원하는 것은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 하나님에게서 더 많이 받기만을 원하는 것은 그분이 날 위해 무엇을 해 주실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 * 하나님의 더 큰 임재를 맛보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성령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 하나님에게서 더 많이 받기만 하려는 것은 내가 목표한 바를 얻기 위해 그분을 이용하는 것이다.

- * 하나님의 더 큰 임재를 맛보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이다.
- 하나님에게서 더 많이 받기만 하려는 것은 나만을 주목하는 것이다.

- * 하나님의 더 큰 임재를 맛보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높이 빙드는 것이다.
- 하나님에게서 더 많이 받기만 하려는 것은 내 관심사를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착각하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 아니 모든 크리스천들의 소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그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하여 수 없이 많이 듣고 배우지 않았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기"의 문제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은 "자유함"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작은 공동체에서도 "뜻"을 남용하는 경우를 봅니다. 누군가 "담임목사님의 뜻이래!"라고 하면 사람들이 마지못해 따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제일 빠른 길은 "목사님의 의중"이라고 말을 한다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도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기고, 잘못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자주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누군가 "목사님의 뜻"이라는 말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없나요? 신앙공동체에서 설교를 하고 듣는 관계가 적어도 인격적 만남이 되어야 할 터인데, 특수한 상황 혹은 누군가의 말에 의해 흔들리고 혼돈스럽다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심지어 제 이름을 빙자하여 통장에 돈을 넣으라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구별하지 못하면 자유함을 잃고 고민한다는 것이죠.

D.L 무디는 기도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종해 맞추는 일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이겠지요? 이 말씀은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사자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고 사슴은 "오늘도 사자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풀을 뜯을 수 있도록 지켜주옵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 주셔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해 지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는 명백한 gap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헨래 블랙가비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아마도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인생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입니다. 저의 신학교 교수이시던 게인스 도빈스 박사님은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항상 틀린 답만 나올 때 우리는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선 답을 찾기 전에 과연 내가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이 올바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단 파악하면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습니다. 초점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생에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그분이 이 세상에서 하고 계신 일에 근거합니다. 그분은 그분이 하고 계신 일에 당신이 알려들기를 열망하십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알면 그분이 당신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착각의 지름길을 늘 하나님의 내 편이라고 해석하면서 생각하는 일들이죠.

지난 해 말 선배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만나자고 찾아왔습니다. 학교 다니면서부터 제가 받은 인상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보다 선배지만 목회 경력은 제가 더 많았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화의 시작입니다.

“김목사! 나 교회를 옮기고 싶어! 아무래도 교회 있다가는 내가 사고를 칠 것 같아!”

태어나서 한 번도 싸워 본 적도 사람을 때려본 적도 없는 목사님인데 교인 하나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무리 기도하고 설득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먹고 1년 동안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의 본질에 대하여 설교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보면 그 교인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 교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설교시간에 이야기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런 독한 설교를 들어야 하는 다른 교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회의를 하다말고 그 분이 문을 광 닫고 나가는 무례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었는데 시간이 가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정말 목회를 못할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나쁜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세요. 목사님 기도원에 데려가서 기도해 보시고, 강대상에 불러서 기도해 보세요.”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연말 기획위원회 혹은 중요한 회의를 할 때는 강단이나,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성만찬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하지요.

"어떤 사람에게 뜻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다같이 하나님께 뜻을 맞추려는 마음을 가지고 회의를 합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도 역시 그런 시도를 했답니다. 함께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읽고 나누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 . ."라고 기도하고, 그 사람 차례가 되면 "하나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라고 기도한답니다.

도대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이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해야 한다고 고민하며 저를 찾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다른 교회가면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또 있을 것입니다. 견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시간을 가지세요. 목사님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라고 말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대답은 명답인데, 그게 우리의 삶에서 쉽지 않은 것이지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 이야기 할 수 있겠네요? 벌써 10년은 된 일입니다. 저에게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해야 하는지 결정을 내리려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마지막날까지 응답이 없이 답답하게 새벽을 맞았습니다. 5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침 일찍 기도원 끝에서 성경을 묵상하는데 아마도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보혜사 성령님의 약속. . . 뭐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분명하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은 좋은데 사람 때문에 옮기지 말고 사명 때문에 옮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사람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리라 결심을 하고 응답을 받고 내려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받아보는 전화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데 제 이름을 생각나게 하셨다고 다음날 주일 저녁에 와서 설교를 부탁하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식사를 하는데 뜬금없이 "김병삼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을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30대 후반의 목사가 담임을 하기에는 규모도 크고 꿈도 많은 그 교회에서 이미 3천 평의 땅을 구입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탈진 한 것입니다. 본인의 능력으로는 여기까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시골교회로 가고 싶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런 목사님이 그 교회를 꼭 담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보고 들었던 미국 교회 몇 개를 소개하면서, 잠시 쉬면서 그 곳을 보고도 동일한 생각이 든다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그러면 제가 담임을 맡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나, 저나 동일하게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고민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때 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만나교회를 사랑하셔서 저를 여기에 세워주셨고,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만나교회 목사입니다. 아니 담임자를 구하는 어떤 교회에서도 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을 열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내가 정해 놓은 원칙이나 생각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를 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함이란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어 놓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는 일 말입니다.

올바른 선택의 문제. . .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가지는 목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유익함과 선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참 기도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 이후에 갑자기 몇 군데서 제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딱 한군데만 들어왔으면 기도의 응답일 텐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의 문제에 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고민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참 신기하합니다.

우리가 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는데,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뜻을 구별하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노력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뜻을 구하는 것보다, 그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친밀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다면, 그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뭔지를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포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라는 것이 큰 희생입니다. 왜냐하면 공부하기 위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만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에게는 공부하지 않는 다른 시간이 큰 희생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소중함"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뭔가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 안에 두신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친밀함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에 대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기꺼이 누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오직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의 지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적인 예배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가비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집을 찾아가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그 집 주인과 동행하며 가이드를 받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고 찾아가면 매 순간 주위를 기울이고 신경을 써야 하지만, 집 주인과 같이 가면 그저 그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으며 주변을 살펴 볼 수 있는 여유도 있고,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과 동역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동역”이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끔 그런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 .”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권세에 대하여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이 잘못 결정을 한다면,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면 어떨까 라는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인한 평안함을 누리기보다는 사단의 지배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준비를 하면서 그런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분이실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지 못한 것 때문에 노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실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조금 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좌우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에 시달렸습니까?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사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동행하며 즐기는 것입니다.

루터가 두려움 가운데 지은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 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두려워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싸우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들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것들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그 분을 의지하고.

지금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한 말씀시리즈를 나누며 지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비한 체험을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 환상을 보았습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신비적인 체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바울의 평생 사역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환상에 의지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도바울에게 특별한 경험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가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어긋납니다.

또한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생각이 드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정말 끔찍한 생각 봇물 생각들이 드는 경우들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넘어가는 것이 문제이지 그런 생각을 주입하는 사단의 세력에 대항하는 것이야말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의 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가 죄가 아니라, 그 생각대로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바라보아도 죄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생각나는 그 무엇, 결정을 내리기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생각을 누가 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선택에 대하여 신나는 일이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그것을 행해야하는 용기도 솟아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할 수 있는 결단력이 여러분들을 멋지게 만들어 줍니다.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선교하는 중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도,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둘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잘못된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사도바울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내 디딜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 한 말입니다.

좋은 이야기로 말씀을 마감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이자 기도의 용사인 허드슨 테일러(James Hudson Taylor) 선교사는, 어느 날 서재에서 이리저리 살피면서 책을 보는데 한 책의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책을 빼서 보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을 보는 순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머리가 갑자기 맑아지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다 이룬 일을 내가 또 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내가 할 일은 주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전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성령님께서 순간적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그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 내지에는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척박하고 위험한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깨달음은 그로 하여금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게 했고, 그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선구자로 살게 했습니다.

적어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